

20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2022 Annual Report

20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2022 Annual Report

발행인 박영정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전화 02-3668-0200
누리집 www.kawf.kr
디자인 바이제이디자인그룹(02-717-3768)



CONTENTS

| | |
|--------------------|----|
| 기관소개 | 3 |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4 |
| 사업성과 | 6 |
| 기관운영 | 18 |

기관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기관소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기관운영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하고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 | | | |
|------|--|---|---|--|
| 미션 |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 | | |
| 비전 | 따뜻한 복지지원, 든든한 권리보장, 행복한 예술인 | | | |
| 슬로건 |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 | | |
| 경영목표 | 예술생태계 회복과 재단 체제의 전환 준비 | | | |
| 핵심가치 |  H 조화·협력 Harmony |  O 열린사고 Open-mind |  P 전문가 지향 Professionalism |  E 윤리·공정 Ethics&Fairness |
| 전략목표 |  안정·자립의 예술활동 기반 구축 |  예술인의 인권 및 사회적 권리 향상 |  지속가능한 예술인 성장환경 조성 |  신뢰·공감의 선진경영체계 확립 |
| 전략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예술활동 지원 확대 • 예술인 맞춤형 생활안전망 강화 • 뉴노멀 대응 창작자립기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강화 • 예술인 사회보장체계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 거버넌스 활성화 •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실천 고도화 •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 |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기관운영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1. 코로나 19 이후 예술생태계 회복에 집중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지원, 예술계 회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으로 4만여 명(1인당 100만 원), 2차 추경 예산 600억 원으로 3만여 명(1인당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인원

 72,391 명

활동지원금

 101,200,000 원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코로나19 기간만큼 실적기간 연장)

재단은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 중 예술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을 위해 예술활동증명의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기간을 연장 적용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된 2020년부터 재난 기간 동안 적용되어 2년씩 실적 산정기간이 2년씩 연장되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호, 2021.12.27. 시행) 이에 따라 예술활동 실적 부족으로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이 어려웠던 많은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술인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후 기준 기간(2022년 신청 시)

| 구분 | 최근 5년 | 최근 3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
| 실적 산정 기준 기간 | 2015년 ~2022년 | 2017년 ~2022년 | 2018년 ~2022년 | 2019년 ~2022년 |

10th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

 20,998명

코로나19 특별용자상품

이율

 1.2%

대출 금액

 7,000,000원 이내

10th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기관운영

1. 코로나 19 이후 예술생태계 회복에 집중

창작준비금 선정 조건 완화

2022년에는 예술인이 경제적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창작준비금을 통해 총 20,998명의 예술인을 지원했습니다. 특히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창작준비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2022년부터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가구원 범위를 예술인 당사자 1인으로 축소해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함께 살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 때문에 실제 소득이 적은 예술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예술인 가정을 운영해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는 예술인을 보호했습니다.

2.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예술표현의 자유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보장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22년 9월 25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없었던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 보호대상이 확대되었고, 법상 금지하고 있는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의 범위도 넓어져 예술인이 좀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특별용자 운영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까닭에 시중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용자사업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용자상품을 통해 1.2%의 낮은 이율로 최대 7백만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3. 재단 설립 10년, 복지지원에서 권리보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2022년, 재단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예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던 예술인복지정책이 예술인의 권리와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는 '예술인 정책'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재단은 이에 대응하고자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10주년 기념 포럼을 통해 예술인복지정책의 10년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 성과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기관운영

예술인의 직업 사이클과 특수성을 고려해 창작을 위한 준비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디딤돌과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위한 창작씨앗,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를 통해 저소득부터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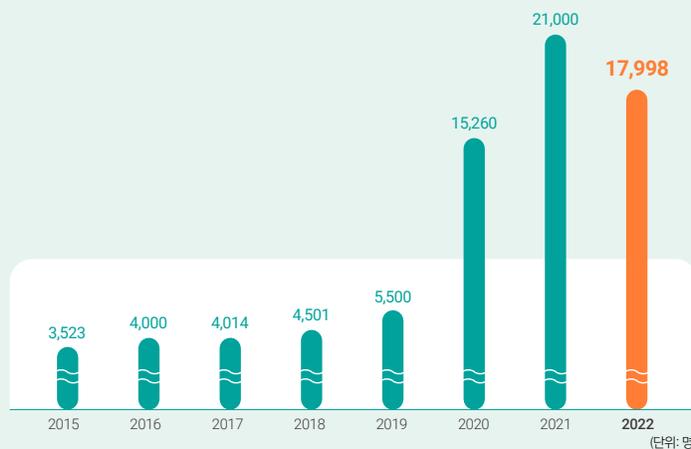
창작디딤돌의 경우 격년으로 1인당 300만원을, 창작씨앗은 생애 1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창작디딤돌을 통해 17,998명의 예술인을, 창작씨앗을 통해 3,000명의 신진예술인을 지원했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지원인원



창작디딤돌 1인당 지원금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지원인원



창작씨앗 1인당 지원금



사업 성과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 등)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기회 및 활동비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2022년 누적 참여인원



1인당 지원 내용

약 6개월간 매월 활동비 (리더예술인)



약 6개월간 매월 활동비 (참여예술인)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 기관운영

예술인들은 개인의 예술적 역량과 기업·기관의 이슈(니즈)를 접목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업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활동 초기 탐색, 관찰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공연, 전시, 워크숍 등)을 기획, 실행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6개월 간 리더예술인에게 월 140만원, 참여예술인에게 월 120만원의 활동비와 교육,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술로 사업은 공모를 통해 개별 선정된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매칭되어 활동하는 '협업사업',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사전에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기획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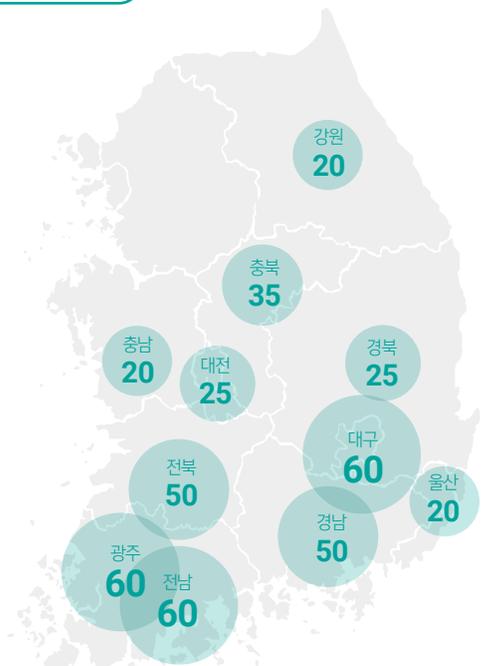
총 1,002명의 예술인이 201개 기업·기관과 함께 조직문화, 홍보·브랜딩, 콘텐츠 개발, 공간개선·활성화, 사회공헌, 지역 사회 개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예술협업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2년 사업 참여 현황



2022년 지역사업 참여예술인 현황



사업 성과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신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 기관운영

2018년부터 시행되어 2020년까지 예술인들의 사회적 역할 경험확대를 위한 현장실습을 진행한 한편, 2021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시작으로 사업대상 및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신진예술인이 현업예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역량강화 및 공공지원 접근성 제고에 요구되는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 프로그램(기획서 작성법, 포트폴리오 작성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신진예술인의 예술분야 및 기회주제에 따라 각 멘토링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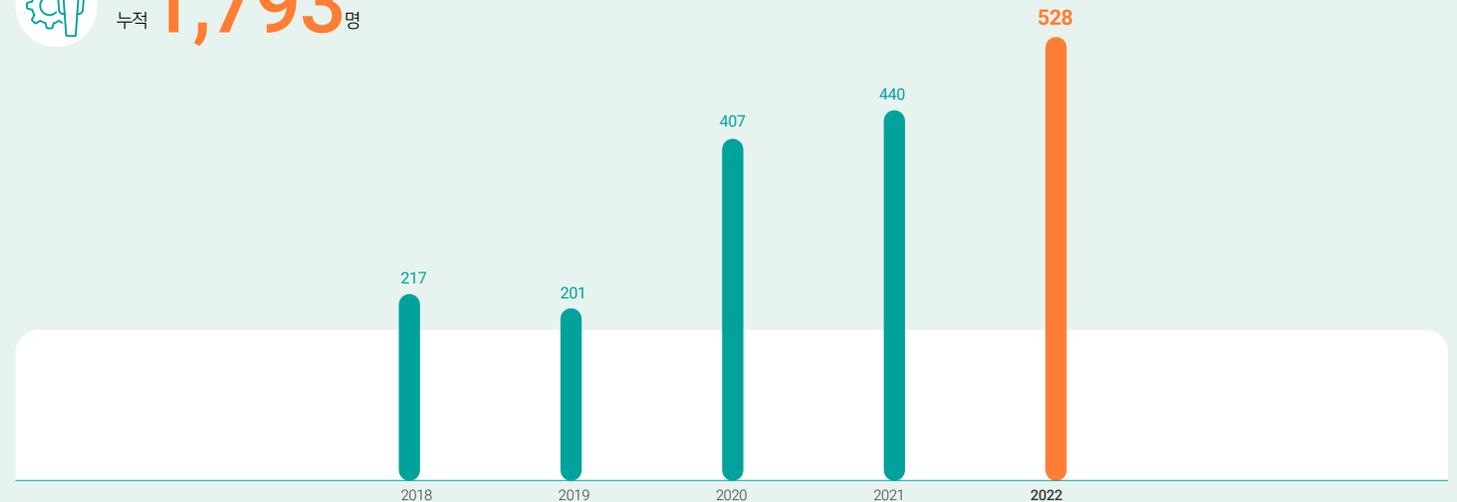
- 기획서 작성법: 공공예술과 창작지원 / 문화예술교육 / 동시대 문제해결 중심의 문화기획
- 포트폴리오 작성법: 시각예술분야 / 공연예술분야 / 기타분야

역량강화 지원

지원인원



누적 **1,793**명



(단위: 명)

사업 성과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행정구제와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예술인 신문고
- 기관운영

2022년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며 예술인 신문고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술인의 범위와 신고 및 구제범위가 확대되고, 예술인조합,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보호관 제도가 신설되며 폭넓게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현장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에 힘썼습니다. 법 내용에 대한 상세안내를 대상자 별(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국가기관/지자체)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했고, 통합 제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2022년에는 사례비 미지급, 불공정 계약 등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67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전, ~9/24,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권리침해 행위 38건(9.25~) 등 총 105건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술활동 자체가 축소되어 신고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공정한 계약 및 수익배분에 대한 예술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2022년엔 957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전화, 대면상담)

법률상담 건수가 늘어나며 예술인이 예술활동 중 겪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대한 사례가 축적되었습니다. 재단은 이를 활용한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을 제작, 배포해 불공정행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서면계약 신고상담창구를 통해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계약 체결 전 계약서 사전 검토, 불공정 계약 여부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면계약 작성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술인 신문고 신고건수

누적 **1,512** 건



법률상담·컨설팅

누적 **4,225** 건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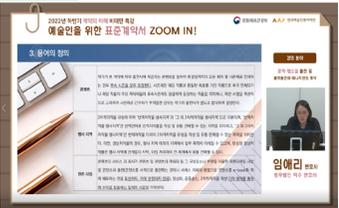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예술 현장의 무계약, 구두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 기관운영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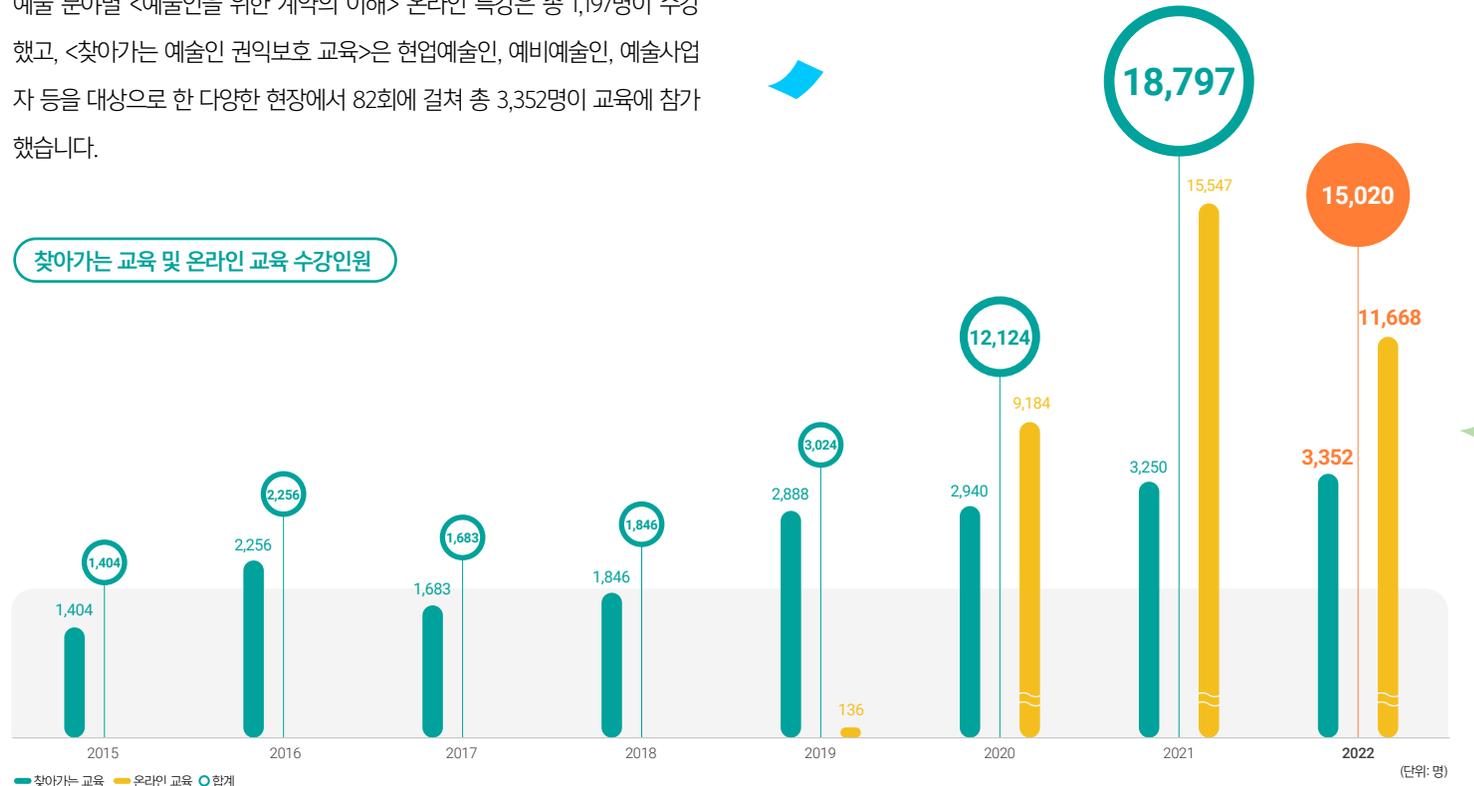
재단은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예술인, 예술사업자, 예비예술인(예술대학교 및 예술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술 분야별 계약교육인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 특강을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형식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했으며, 찾아가는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예술 분야별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 온라인 특강은 총 1,197명이 수강했고, <찾아가는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은 현업예술인, 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현장에서 82회에 걸쳐 총 3,352명이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예술인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종류와 방식을 더욱 확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예술계 계약 및 저작권의 내용을 담은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서면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을 담은 교육과 더불어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활용의 이해 교육'을 출연·창작 분야와 기술지원 분야로 나눠 상시 학습 가능한 이러닝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특히나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교육'의 경우, 수어·문자 통역을 도입해 장애 예술인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했습니다. 2022년에는 총 11,668명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수강인원



사업 성과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창작활동 중 생길 수 있는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심리상담 지정기관



2022년 기준 총 누적 인원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기관운영

전국의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예술인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높이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술인은 엄선된 심리상담지정기관에서 공인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심리검사 및 최대 12회의 개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는 전국의 37개의 심리상담 기관이 지정, 운영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총 1,728명의 예술인(개인상담 1,316명, 집단상담 및 교육 412명)이 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유선, 화상 등) 상담을 확대하였고, 개인 심리상담을 종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그룹 집단상담을 운영하여 예술인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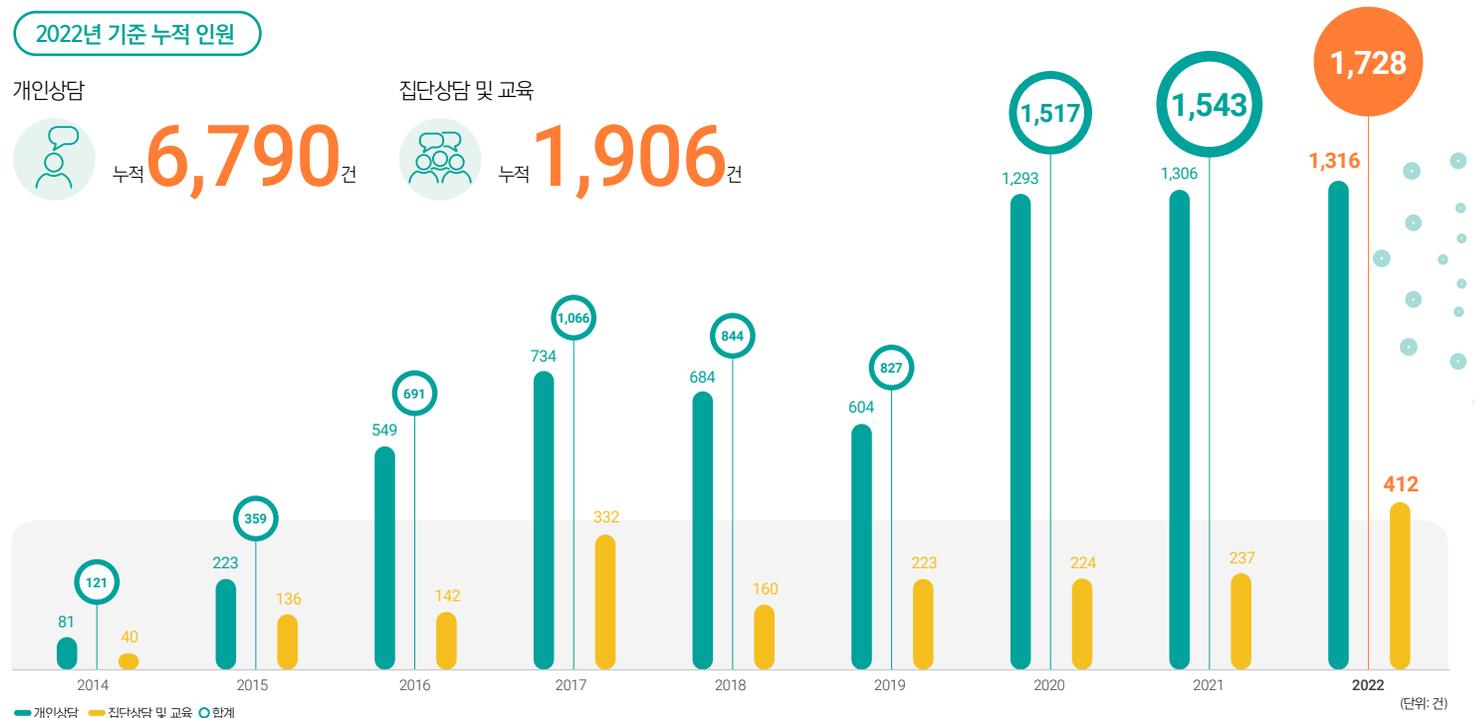
또한 주변에 심리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고민하는 예술인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예술인 자살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술인 자살예방 교육'은 2021년 도입한 것으로, 예술인들이 서로의 심리적 어려움을 알아보고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누적 인원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교육



사업 성과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미투 운동으로 대두된 예술계 내의 성폭력 문제 개선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횟수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인원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 기관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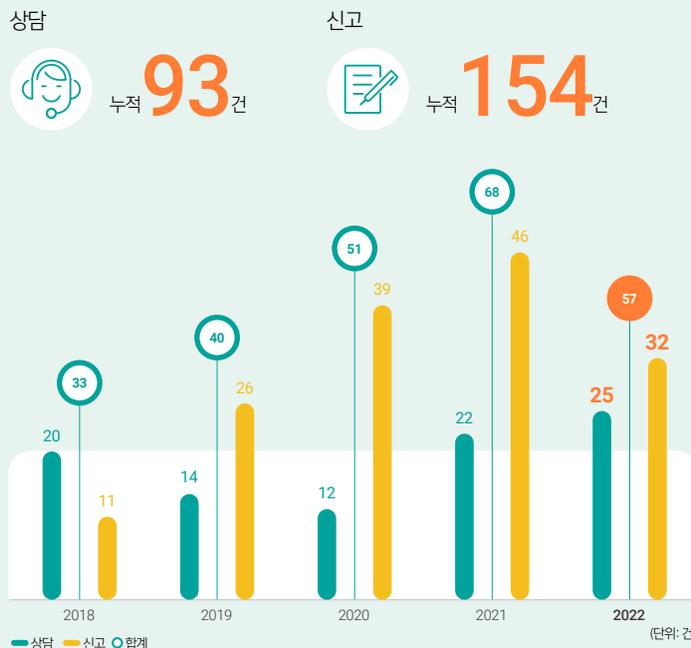
피해 예술인의 위기상황 대처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성폭력 이해 및 성평 등 인식 제고를 통해 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신고를 받기 시작했으며 9월 25일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좀 더 폭넓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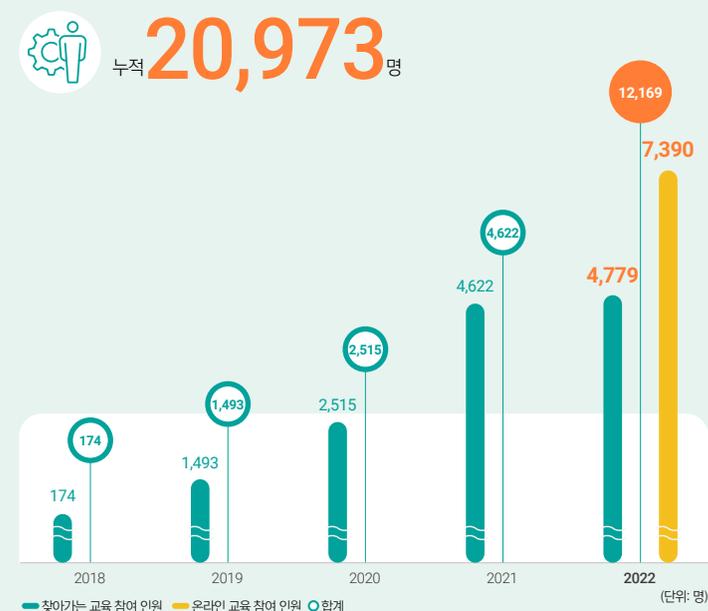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예술인, 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대상 예방교육도 실시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에 이은 관리 운영을 통해 예술인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54회의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누적 20,97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에는 상시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강좌를 신설하여 12,169명이 예방교육에 참여하며 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피해 신고·상담 현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현황



사업 성과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 내에 납부한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창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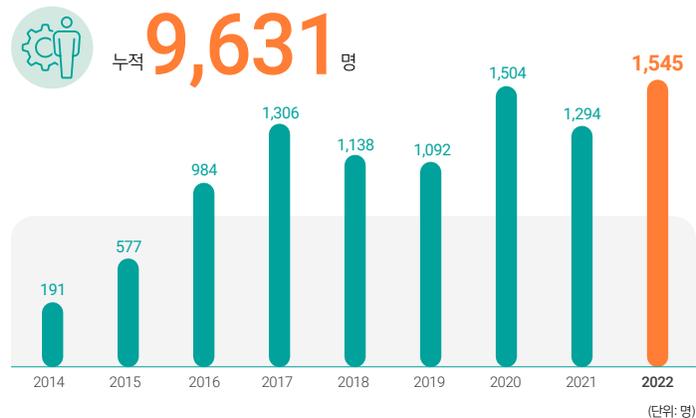
2020년 12월 10일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재단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소개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사업성과 |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창구 운영
기관운영

2022년 누적 지원인원

지원인원



이 사업을 통해 재단은 예술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표준계약 체결 조건부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표준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40~80%를 지원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예술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창구를 운영하며 연중상시로 온오프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를 통해 이루어진 상담건수는 총 4,217건이며 20회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예술현장에 직접 찾아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상세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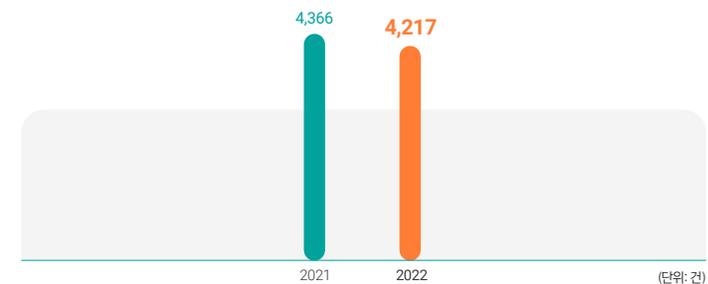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온오프라인 안내 콘텐츠를 제작해 예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 건수



찾아가는 설명회 건수



사업 성과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

재단은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과 함께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
- 기관운영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1등급~12등급의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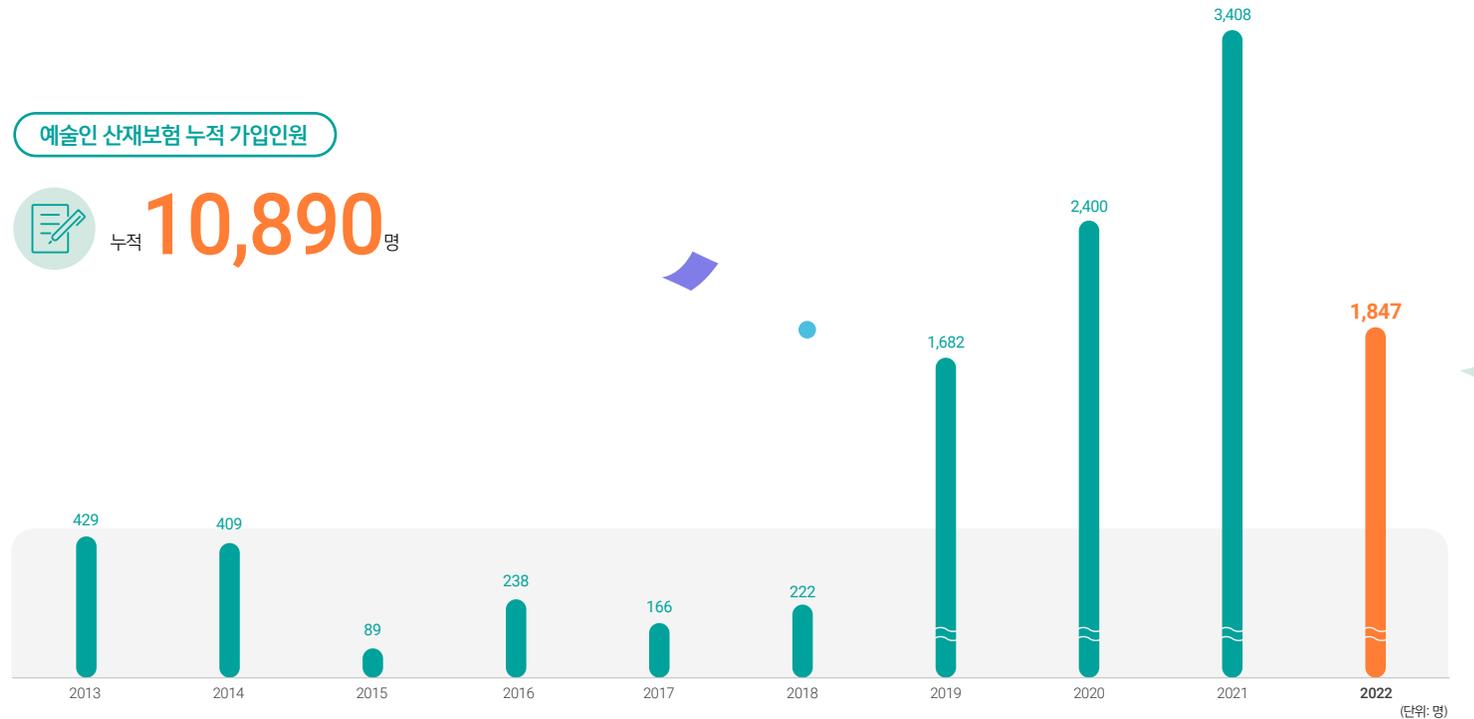
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증명원 발급 등 산재보험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산재보험료를 50~90%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시스템의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해 예술인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재보상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강화해 불승인 건에 대해 컨설팅 후 재심사로 산재 승인을 받는 등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 예술인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는 1,847명으로, 누적 가입인원은 10,890명입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누적 가입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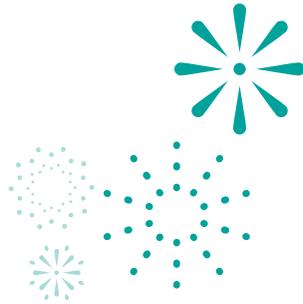
누적 **10,890** 명



사업 성과

예술인 의료비 지원

2013년부터 시행된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예술활동으로의 복귀와 지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기관운영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를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중증질환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80% 이하로 거주 지역별 보유자산이 기준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2022년까지 총 442명의 예술인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의료비 지원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 구분 | 2013~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
| 합계 | 70 | 18 | 20 | 61 | 20 | 36 | 56 | 66 | 95 | 442 |

(단위: 명)

돌봄센터

2022년 누적 이용인원



시설 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시간제 돌봄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보육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대학로와 마포 총 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문 업체를 통한 방역소독, 사전예약 및 외부인 출입통제, 출입명부 작성, 체온 측정, 마스크 및 손소독제 사용, 식사 중 거리두기 등 예술인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운영했습니다.

돌봄센터 총 2개소

- 반디돌봄센터(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 예술인자녀돌봄센터(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사업 성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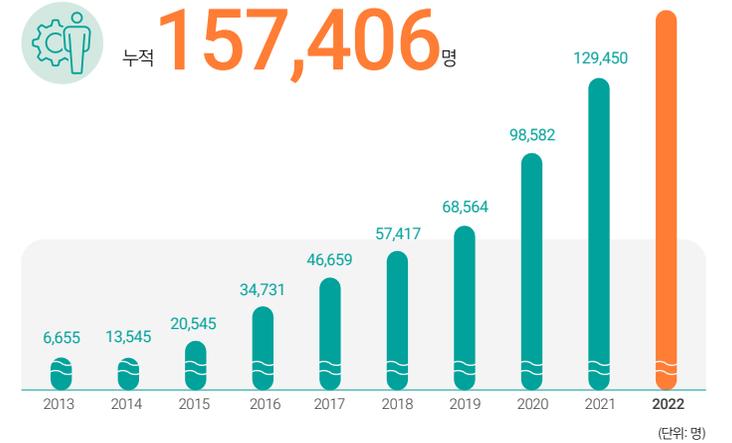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패스
- 기관운영

재단은 11개 예술 분야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변화하는 예술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특히나 2022년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위축된 예술인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명을 위한 산정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스트리트댄스, 방송댄스, 웹툰, 웹소설, 그림책 등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예술인복지사업 대상자로 포섭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난 예술활동증명 수요에 따라 2022년에만 약 2만 8천여 명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 누적 완료자수가 157,406명을 기록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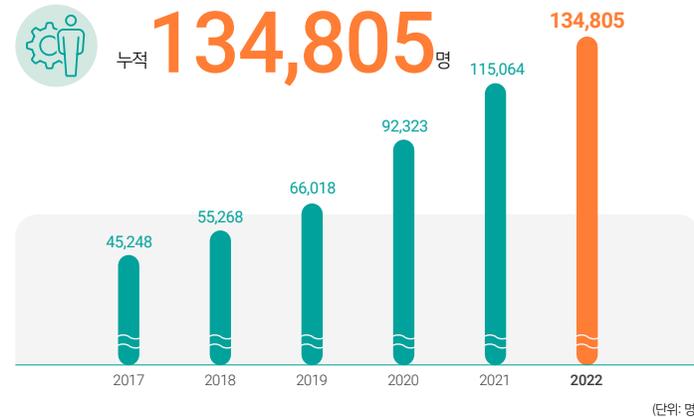
누적 완료자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 누적 발급 현황

발급인원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예술인패스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해 자긍심을 높이고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예술인패스 누적 발급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2년 누적 134,805명이 예술인패스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용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 박물관, 공연장 등 제휴처 67곳을 추가로 확보, 2022년에는 총 685개소에서 예술인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성과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정책금융 사업입니다.

2022년 지원 인원

2,422명

누적 지원 인원

9,823명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기관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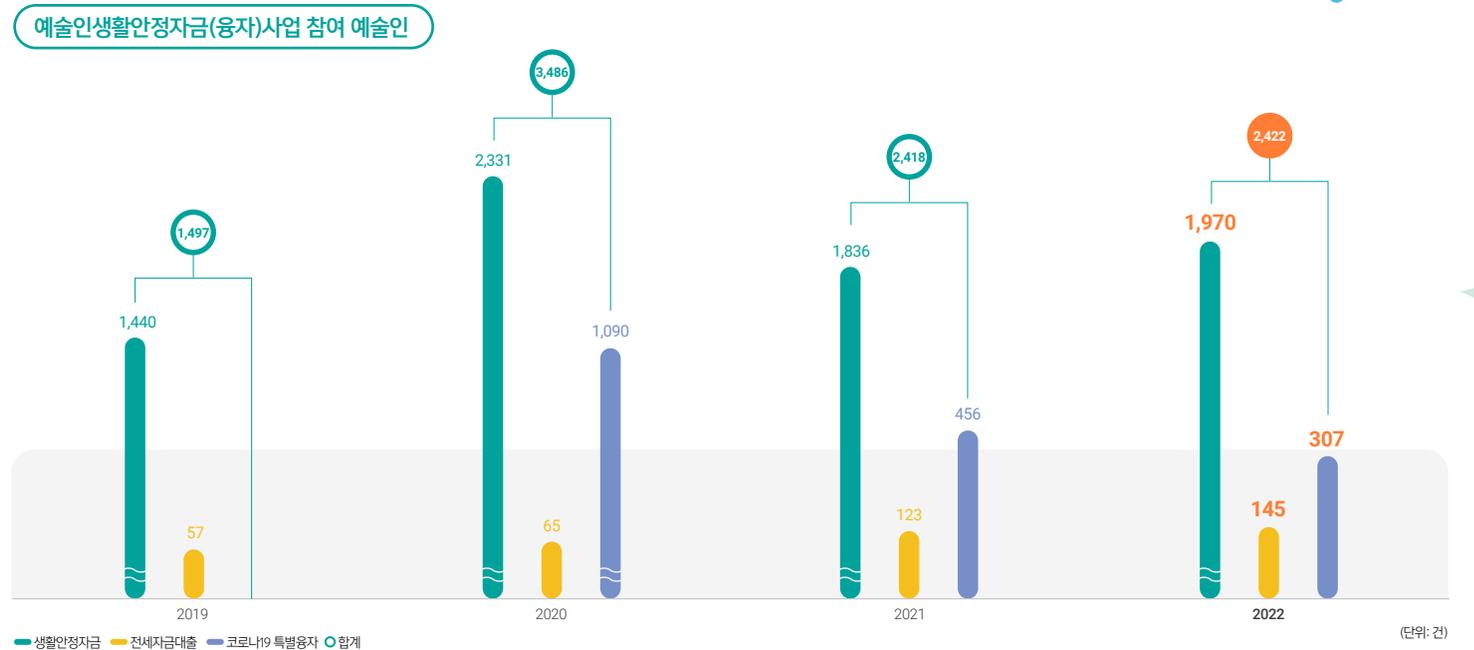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였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총 230억 원 규모로 운용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 대출’, ‘코로나19 특별용자’, ‘전세자금 대출’ 등 세 가지 상품을 운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2.0%의 이율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상품으로 한도는 최대 7백만원(긴급생활자금 최대 5백만원)입니다. ‘코로나19 특별용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취소, 연기되거나 수입이 감소된 예술인에게 1.2%의 이율로 최대 7백만원 한도의 대출을 제공했고, 1.7%의 이율로 최고 1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 및 창작공간 확보를 도모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총 2,422명입니다.

재단은 사업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예술인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생력 회복을 지원합니다. 용자의 필수사항으로 ‘금융교육 이수’ 요건을 두었고, 이와 별도로 예술인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신용관리,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 보호법, 금융사기 예방 등)를 제공했습니다.



기관운영

2022년 예결산 현황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기관운영 | 2022년 예결산 현황

예결산 현황

2022년 세입

| 구분 | 예산 | 결산 |
|--------|---------|---------|
| 합계 | 203,129 | 200,630 |
| 국고보조금 | 178,946 | 177,034 |
| 정부지원 | | |
| 체육진흥기금 | 200 | 176 |
| 문예진흥기금 | 23,900 | 23,347 |
| 기타 | 73 | 73 |

(단위: 백만원)

2022년 세출

| 구분 | 예산 | 결산 |
|------------------|---------|---------|
| 합계 | 203,129 | 200,630 |
| 예술인복지재단 운영지원 | 3,605 | 3,464 |
| - 인건비 | 1,987 | 1,986 |
| - 경상비 | 1,618 | 1,478 |
| 직업역량강화 | 8,726 | 8,688 |
| 창작역량강화 | 62,004 | 61,825 |
| 불공정관행개선 지원 | 2,281 | 2,164 |
| 사회보험가입 지원 | 1,068 | 1,053 |
| 예술인고용보험안내창구 운영 | 62 | 58 |
| 코로나19한시 문화예술인 지원 | 101,200 | 100,495 |
|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 | 200 | 176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23,900 | 23,347 |
| 기타 | 73 | 73 |

(단위: 백만원)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기관운영 | 연혁

기관운영

연혁

- 2011** 11.17 「예술인 복지법」 제정

- 2012** 11.18 「예술인 복지법」 시행
11.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 2013** 03.05 창작준비금(디딤돌) 사업 시행
09.30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
12.10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 01.28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시행
02.24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개설
03.27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03.31 『예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대한법률구조공단)
04.15 반디 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05.14 문화예술융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 시행
06.19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업무협약 체결)

- 2015** 10.22 제2대 상임이사 박계배 취임
12.19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 2016** 01.29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 2017** 0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5.4 시행)
02.11 문화·예술인 패스 사업,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관
02.15 제2대 이사장 이문열 취임
09.21~ 예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12 기준 총 19개 광역/기초 문화재단)
11.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 확대(12.30 시행)

- 2018** 03.14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12.28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 02.23 제3대 상임이사 정희섭 취임
06.20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 2018** 06.27 제3대 이사장 윤영달 취임
10.24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 2019** 06.2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시범사업 시작
08.26 예술인복지위원회 출범
11.18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출범

- 2020** 03.01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활동증명 재직증명 인정
05.27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개설
12.10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2021** 02.01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10만명 돌파
04.01 제4대 상임이사 박영정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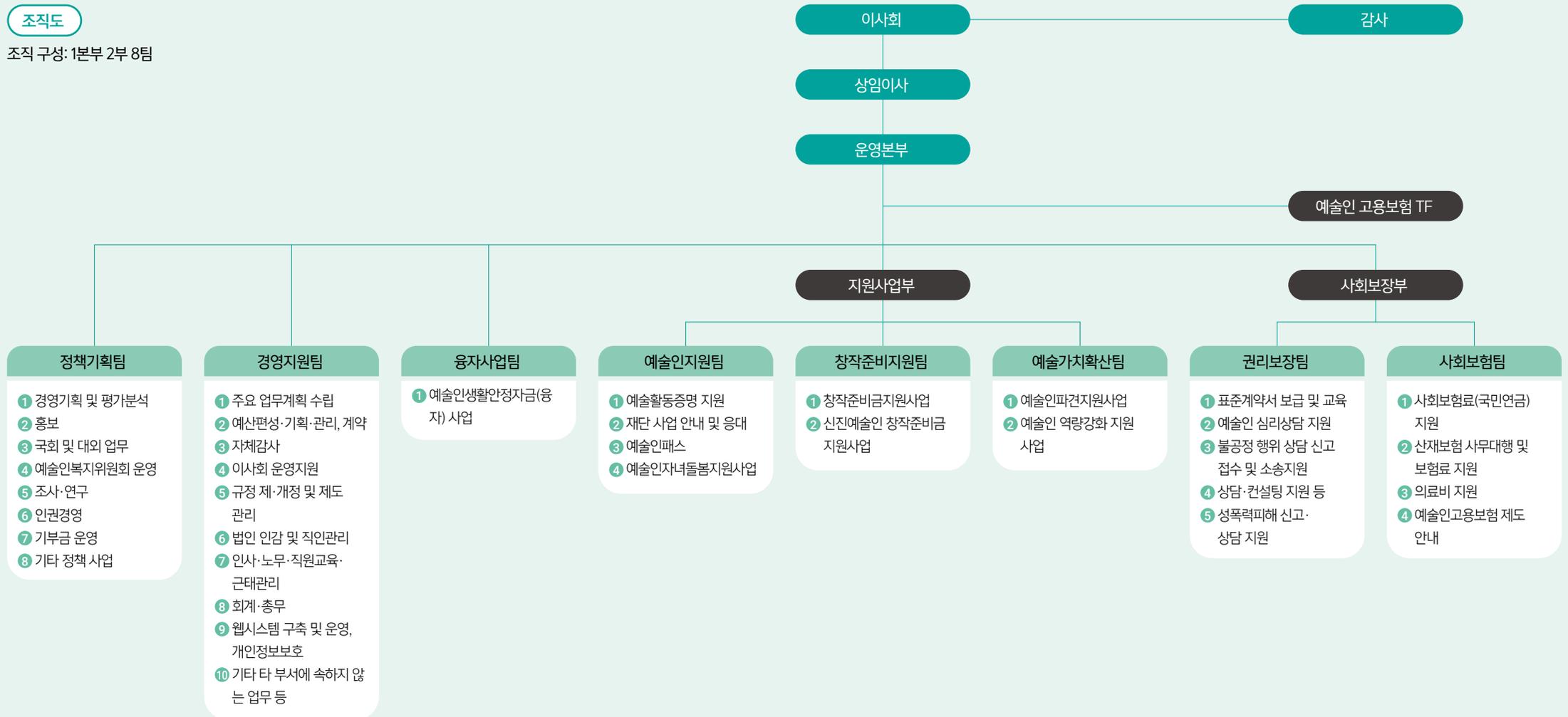
- 2022** 02.15 제4대 이사장 김영철 취임
09.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기관운영

조직 및 부서별 업무내용

조직도

조직 구성: 1본부 2부 8팀



- 기관소개
- 한눈에 보는 2022년 주요 성과
- 사업성과
- 기관운영 | 이사회

기관운영

이사회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 상임이사 1명
- 당연직 2명
- 선임직 9명
- 감사 1명

| 직위 | 이름 | 주요경력 |
|-------------|-----|----------------------------------|
| 이사장(비상임) | 김영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
| 상임이사 | 박영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2021.4.1.~) |
| 이사(비상임) | 권남희 | (사)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회장 |
| | 김병호 | 스쿨씨어터협동조합 이사장 |
| | 김영주 | 협성대 교수(가구디자인학과) |
| | 김용환 | 추계예대 교양학부장/국제교육센터장 |
| | 김인희 | 수원발레축제 총감독 |
| | 양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 | 이용진 | 前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 | 천재현 | (사)정가악회 대표이사 |
| | 한상정 | 인천대학교 부교수(불어불문) |
| 당연직 이사(비상임) | 이은복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2022.8.22.) |
| | 이정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2022.8.22.~) |
| | 박두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2022.8.31.) |
| 감사(비상임) | 송시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2022.9.1.~) |
| | 정희경 | 메리츠자산운용(주) 수석 |

